

“미래사회 문제 해답, 불교 안에 있다”

정각원 화요 비교종교학 강좌

민희식 前한양대 교수

동국대 정각원에는 3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바로 비교종교학의 대가인 민희식 박사의 강의다. 민희식 박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문학박사로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계명대 교수 등을 지내며 종교학자들을 지도해왔다. 11월 24일 강연에서 민희식 교수는 ‘불교와 서양철학’을 주제로 서양 철학과 불교사상을 비교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nul.com

고대한국 미술 연구에 전 생애를 바친 화가 '양드레 로트'는 신라시대 불상은 순화되고 세련된 간다라적 표현방법을 가장 잘 살린 불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계적 유산인 석굴암 본존불의 모습과 보살, 나한, 사천왕(四天王), 인왕(仁王) 등의 배치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균형미와 조화로우며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불교문화재의 완성된 형태미를 찬탄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서구 사람들의 찬탄은 문화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불교에 미래사회의 해답이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고 돌과 같은 무정물에도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의지에 의한 체관(諦觀)에 의해 해탈을 얻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니체는 비합리성과 고뇌로 넘치는 삶을 극복하고, 참된 인간의 삶을 여는 것이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도 주목한 진정한 의지의 삶, 참된 인간의 삶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니다. 기후도 온난하며 일찍이 농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이 지역의 상황은 사상과 종교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경들을 비롯해 논어, 도덕경 등 동양 경전을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구약성서를 비롯한 경전들을 보면 다른 종족과의 투쟁, 약탈에서의 치열한 삶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종교도 그로 인해 이원론 성격을 띠니다. 옳으나 그르나, 좋으나 나쁘나, 선이나 악이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죽느냐 사느냐의 대립구조인 것입니다.

서양 종교는 척박한 삶에서 개척해나가고 투쟁해나가는 삶에 맞습니다. 반면 동양 종교는 풍요로움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데 맞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의 척박함, 빈곤함은 있지만 예전에 비해 우리는 훨씬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유럽지역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이 급속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교, 합리성을 담보로 연역적 방법 제시

이 중 불교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주법칙을 밝히고 그 생명의 순환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과학과도 유사합니다.

오늘날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카오스와 복잡계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고의 패러다임은 서양의 종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불교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합리적인 종교로 과학과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대와 미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합리적 사상은 과학의 발달을 이끌었지만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적인 해결법은 귀납적인 이해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1=2, 2+2=4와 같은 합리적 사고법이나 수학적, 물리적 수법은 자연과학, 특히 공학방면에서 강력한 위력을 지니지만 인간의 정신적 영역활동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면 동양적 방법, 특히 불교의 방법은 연역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처음 결론이 나오고 그 것을 믿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사고는 두뇌에 의한 사고지만 동양의 사고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화경>을 읽으면 우주의 최고의사신



민희식 교수는 ... 1934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986년 프랑스 최고문화훈장을 받았다. 민희식 교수는 <법화경과 신약성서>, <불교와 서구사상>, <예수와 붓다> 등 개신교의 뿌리와 불교사상이 맞닿아있음을 논증하는 저술을 다수 집필했다. 또 옮긴 책으로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감정교육>, <보바리 부인>, <에밀>, <우연과 필연> 등이 있다.

서양사상 비해 다원주의 인정

합리성 바탕, 과학과도 연결

연역적 전개는 실천성 이끌어

마음가짐 바로하면 지옥이 극락

깨달음에 이른다 믿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따지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믿고 실천해 나가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8식이 속업으로 변하고 7식의 자아작용이 개선됩니다. 또 6식의 마음이 바르게 작용하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서양적인 합리적 과학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납법으로 훈련받은 현대인이 동양적 연역법을 활용할 때 모든 사고의 벽이 깨지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9식 '아리아식' 지혜수와 같이 모든 인간의 생명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우주의식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행복감을 활용해 인간의 고뇌와 그로인한 병으로부터 구제해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서양 과학이나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외부에서 구합니다. 그러나 동양사상, 특히 불교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음을 깨우쳐 행복을 얻어나갑니다.

자기의 내부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공덕은 자기에만 미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모든 환경이 개선되도록 합니다.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명력, 즉 우주

의식을 접하게 되면 투쟁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합리주의는 근대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나 자기중심의 이기적 본능을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지구 생명은 급속히 파괴되고 환경과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금입니다.

실천의 종교, 마음가짐 바로 해야

그렇다면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법화경>에서는 그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법화경> '약초비유품'에서는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넘치고(苦) 그것에는 탐·진·치에서 온다고 설명합니다. <묘법연화경>이라는 이름으로 <법화경>을 쓴 구마라집(鳩摩羅什)은 그 방법론(方便品)에서 원전에 없던 십여시(十如是)를 추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법화경의 요체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여시는 천태교설(天台敎說)의 여러 가지 교설로 전개돼 우리 삶에 대한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연의 끝으로 이 십여시를 설명하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십여시(十如是)는 10종류의 인간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인 여시상(如是相)은 겉에 나타난 모습(形相)입니다. 두 번째인 여시성(如是性)은 그 안에 갖추어진 성질(特性)을 말합니다. 세 번째인 여시체(如是體)는 개개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本質)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인 여시력(如是力)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能力)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인 여시작(如是作)은 밖에 나타난 작용(作用)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인 여시인(如是因)은 사문의 생기(生起)를 이끄는 직접원인(因)을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인 여

시연(如是緣)은 인(因)을 돕는 보조인(緣)입니다. 여덟 번째인 여시과(如是果)는 인과 연이 초래하는 결과(果)를 뜻합니다. 아홉 번째인 여시보(如是報)는 결과가 가져오는 보(報)를 말합니다. 끝으로 열 번째인 여시본래구경(如是本來究竟)은 첫 번째인 여시상에서 아홉 번째인 여시보까지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이 관련성은 10종류의 인간의 10가지 마음가짐을 가지는 십계호구(十界互具)로 인간의 마음은 한군데만 멈추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작용 결과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여래의 10가지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지옥의 불바다에서 괴로워할 때 그 곳이 지옥계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귀계, 수라계, 색정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수시로 지옥의 생명, 부처의 생명이 현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개의 세계는 수시로 변합니다.

한 도적의 예를 들면 한평생 도둑질하고 산 한 인간이 한때 물에 빠진 거미를 보고 건져준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죽은 후 그는 지옥에 빠졌는데 아마타 여래가 거미줄을 하늘에서 내려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거미줄에 매달린 그 악인은 자기 뒤에 거미줄에 매달린 자들이 있어 그를 발로 차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결국 거미줄은 그 악인의 행동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선행은 잠시 보상받았으나 그 마음가짐이 악했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마음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방향은 3000개나 됩니다. 매순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면 거미줄이 아닌 지옥의 화염이 바로 극락이지 않을까요.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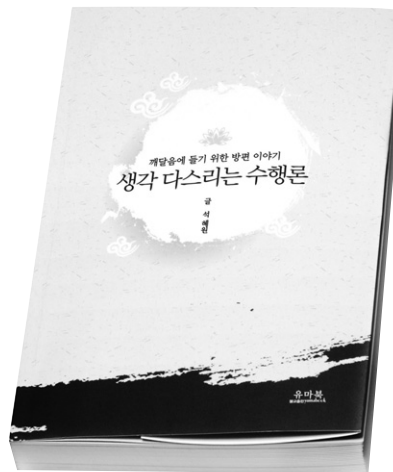
금강삼매경 출판기념법회 불교방송 3층법당 12월 29일 오후 2시 (참석인 책증정)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 1,2,3,4 단계 이수 후 공(空)마저 놓는 수행으로 보살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살들이 중생의 궁금증을 대신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이고, 고뇌가 일어날 때 공(空)에 굴에 두라고 하지만, 미혹한 중생은 경계에 빠지니, 방편을 제시하고 공(空)에 들게하고 공(空)마저 놓게 한다.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상구보리는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 1단계 : 들숨날숨 집중
- 2단계 : 들숨날숨 관찰
- 3단계 : 화두참구(견성)
- 4단계 : 공(空)에 들어감

▶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수강생 모집

- 1기 접수중
- 인원 : 50명
- 저자 해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이수자. 단, 공(空)에 든 분은 예외

▶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수강생 모집

【1기 수강 후 하시는 말씀】

- 2기 접수중
- 저자 해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 사부대중 (50명)
-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 몸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 미래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무아선원 031)721-2148~9

◆ 첫 강의 입재

■ 날짜 : 2013년 1월 10일

■ 기간 : 1년

■ 교재 : 금강삼매경,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 강사 : 해원스님

도서구매 불서홍판 운주사 02)3672-7181~5
교보, 영풍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